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추수감사 총동원 주일

2024년 11월 17일(주일은 추수감사 총동원주일로 지킵니다.

3.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및 성전 성탄 장식

2024년 11월 24일(다음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예배가 바쳐지면 본당 성탄장식을 할 예정이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강절, 성탄 점등 예배 및 첫날맞이 일삭예배

2024년 12월 1일(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첫날맞이 일삭예배로 드리며, 성탄 점등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는 점등위원(男1, 女1)과 성탄준비 대림절과 관련하여 특송 1곡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5. 2024년 다니엘21일기도회

일시 : 2024년 11월 1일(금) ~ 21일(목) 매일 저녁 7:30~9:30
장소 : 주사랑교회 본당 (어린이는 교육관)

6. 목요 구역예배

금주 목요 구역예배는 정애자 권사 가정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16번길 18, 황제연립 라동 201호)

7. 어린이 예배

매주 주일 오후 1~2시 어린이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8. 청소년 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4~5시 청소년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9.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희락 학생(+11.12)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11/17	추수감사주일 새생명 초청 총동원 주일
11/19	경기서지방 교역자 기도회 추수감사장식퇴거/성탄장식삽
11/21	다니엘기도회 간중의 밤
11/24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주사랑교회 7주년 감사주일
12/01	대림절 1주 / 성탄 점등 예배 첫날맞이 일삭예배 (성찬예식)
12/03	저항회교육원 세미나 다음세대 신년목회를 위한 제안
12/08	대림절 2주
12/12	경기서지방 목회자 부부 기도회
12/17	복합성도와 함께하는 성탄예배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행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분	분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 11/17 이광근 안집사
- 11/24 임명자 집사
- 12/01 임명숙 집사
- 12/08 정애자 권사
- 12/15 김혜숙 권사
- 12/22 박제연 집사
- 12/25 이광근 안집사



주사랑 7권 46호 | 2024년 11월 17일
창립 2017.11.25 | 성령강림 후 스물여섯째 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26)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전에 배

오전 11시 00분 **추수감사주일 / 다니엘2기도(3주)** 인도: 집례자

- ※ 목 도 합 3:17~19 인 도 자
- ※ 찬 송 가 찬 1장 다 같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 ※ 사도신경 다 같 이
-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 성서교독 No.105 감사절(1) 인도자/회중
- 찬 송 가 찬 393장 다 같 이
(오 신실하신 주)
- 대표기도 이광근안집사
(남연도회장/재정부장)
- 성경봉독 요한복음 6:1~13 (신약 152) 이광근안집사
- 특 송 감사를 선택하기 이광근 가정
(이광근 안수집사, 박제연 집사, 이재우-제화제아)
- 성경암송 이재희 여인이
(Beginner's Bible 7약 48 Chapter 완독 / A Voice in the Night)
- 광 고 인 도 자
- 말씀인도 감사로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한승훈 목사
- 봉헌찬송 감사찬송 다 같 이
(헌금위원 : 한성결 학생)
- ※ 축 도 한승훈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십 일 조 : 이광근박제연 한승훈임명순 한은총 한희락
-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효 박제연 이광근 임명숙 임명순 임명자 한승훈
-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희 이재아 임명순 한성결 한은총 한희락
- 감사헌금 : 이광근박제연전녀 전복순 한승훈 임명순(삼배) / 한창수 오경자
- 월삭감사 : 이광근박제연
- 추수감사 : 한창수 오경자
-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 선교헌금 : 이광근박제연
- 건축헌금 : 이광근박제연
- 후원헌금 : 독지교회 박미란 정아배
- 성전장식 : 김혜숙 임명희 정혜리(목) 성원수며 한승훈 임명순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국내선교(선한총성교회)  정정 목사(예성) 선한총성교회 성품연구소 대표 태고연구소 대표	국내선교(우주교회)  이재우제화제아 홈스쿨링 성경적 가정 복음적 다음세대	해외선교(모로코)  햄프턴 선교사 안사랑 선교사 모로코 컴미션 파송 소리 단이	해외선교(타지키스탄)  이진음 선교사 임민주 선교사 타지키스탄 안미림 파송 평신도선교사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기성 총회 향촌 북한선교정책수립 북한선교교회개건 북한이탈주민정착 통일선교학교
--	---	---	--	---

다니엘 21일 기도회

오후 7:30 ... **다니엘기도회** ... 김성은 목사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6:10 (신 292)
 말씀제목 모든 것을 기원자
 말씀인도 김성은 목사

수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 **다니엘기도회** ... 최경주 장로
 성경봉독 롬 8:6, 잠 27:1, 사 35:3
 말씀제목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삶

목요 구역 기도회

오후 2:00 ... **삼방가영** ... 박제연 집사
 성경봉독 왕상 15:9-24 (구 541)
 대표기도 김혜숙 관사
 말씀제목 일평생 한 마음 신앙 갖기

금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호세아 2:14-35 (구 1258)
 말씀제목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새벽 기도회

새벽5:30 **매일성경 (월~금)**
 17일일 담전 6:3-10 자족하는 삶의 능력
 18일월 담전 4:1-8 말세의 징조가 가까울수록
 19일화 담전 4:9-22 끝까지 복음의 일꾼답게
 20일수 호 1:1~11 온전한 사대를 향한 때까지
 21일목 호 2:1~13 주님의 포를 모르는 사랑
 22일금 호 2:14-35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23일토 호 4:1-19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
 24일일 호 5:1-15 순결한 신앙, 간절한 기도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 ⑦ 하나님께서는 급히 돌아온 하만을 왕후 에스더의 잔치로 인도하는데 아하에수로 왕이 에스더에게 요구한 소원에 대한 에스더의 답변은?(에 7:3~8)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히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가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가 ()에는 ()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 ⑧ 모르드개와 유대 민족을 모함하고 멸절하려고 했던 하만에게 하나님은 결국 어떤 심판을 내리시나요?(에 7:9~10) 그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 되는 ()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에 달라 하매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 ⑨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위해 아하에수로 왕이라도 쉽게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요청을 제안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에 8:5~8)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차마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차마 보리이까 하니 아하에수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하려 하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아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할 수 없음이나라
- ⑩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의 주요 골자는?(에 8:11~12)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 스스로 ()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에수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십이월 십삼일 ()에 하게 하였고
- ⑪ 왕의 조서에 따라 이스라엘의 대적 하만의 일족들을 멸할 때의 특징은? (에 9:10)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 ⑫ 유대 민족의 복수혈전의 최종 성과와 특징은?(에 9:15~16) 아달월 십사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대인이 모여 또 () 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기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bene 해드립니다)

성경공부 : 2024-46 주 / 에스더 5장 ~ 9장

- ① 에스더가 삼일 금식한 후, 비장한 마음으로 아히수어로 왕의 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위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셨나요?(에 5:1~3)
 제삼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 손에 잡았던 ()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이 무엇이며 ()가 무엇이나 ()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 ② 에스더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왕에게 어떤 요구를 하나요? (에 5:4-5)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사거든 ()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 ③ 왕후의 접대를 받은 하만의 반응은 어땠나요?(느 5:9)
 그 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 ④ 왕후의 접대의 기쁨과 모르드개의 반응에 대한 불쾌감을 그의 아내에게 토하자 그의 아내가 모르드개를 처형하기 위해 잔 계략은 무엇인가요?(느 5:14)
 그의 아내 ()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를 세우니라
- ⑤ 이스라엘 민족의 멸절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개의 충성과 겸손한 일상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수어로 왕에게 간접한 방법은?(에 6:1~3)
 그 날 밤에 왕이 ()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하려는 음모를 ()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 ⑥ 하나님께서 모르드개를 높이시기 위해 교만한 하만의 꾀를 사용하신 내용은?(에 6:8-10)
 왕께서 입으시는 ()과 왕께서 타시는 ()과 머리에 쓰시는 ()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11/10일(주일)~17일(주일) 일정

날짜	강사	약력
17일(일)		갈렙선교회 대표 탈북민 1,026명 구조 지원 '비온드 유토피아', '끝까지 간다', '천국의 국경을 넘다' 외 다수 출연
18일(월)		(주) 우성염직 (주) 우성에프엔티 대표이사 (사) 우성하나미션 이사장 선한목자교회 장로
19일(화)		엠마오교회 담임목사 303비전 성경암송학교 교장 "롬팔아팔" 저자
20일(수)		프로골퍼 (한국인 최초 PGA 진출) 최경주 재단 설립 미국 유럽 아시아투어 포함 31승
21일(목)		

북녘 성도와 함께하는 성탄 예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2024년 12월 17일 저녁 7시 충현교회에 모여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선물로 주신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탄 예배에 초청합니다.

녹음되어 북녘으로 송출되는 성탄 예배에
회중으로 평예찬양대로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시 | 2024년 12월 17일 저녁 7시 장소 | 충현교회(역삼동 소재)

구역예배 • 가정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운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서	예배 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931	남조 북이스라엘 분열	왕상 12장
찬송가 찬 575장	다	913	남조 르호보암의 죽음	왕상 14장
대표기도	김혜숙 권사	913	남조 아비얌의 등극	왕상 15장
성경봉독 왕상 15:9 ~ 24	말은이	910	남조 아비얌의 죽음	왕상 15장
말씀인도 일평생 한 마음 신앙 갖기	박제연 집사	910	북조 나답의 등극	왕상 15:25-31
합심기도	다	911	남조 아사의 등극 (~870)	왕상 15장
헌금기도 찬 585장	말은이	908	북조 바아사의 등극 (~885)	왕상 15장
주기도문	다	884	북조 엘리의 등극 (~885)	왕상 16장

■ **들어가는 말**

솔로몬의 때부터 시작된 우상숭배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으로 책망과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발을 들여놓은 우상숭배는 점점 구체화되고 심화되고 교묘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은 그의 부친 아비얌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BC 911~870).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20년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41년 동안 남 유다 왕국을 통치했는데, 유다 왕 중에서는 가장 긴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어머니를 아비살롬의 딸 마야가로 소개했는데, 이는 아비얌 왕의 어머니와 동일 인물입니다(왕상 15:2). 따라서 마야가는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입니다. 아마도 아사 왕의 부친 아비얌이 일찍 죽었기 때문이고, 아사가 왕위에 오를 때 태후의 자리에 있었던 마야가가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영향력은 하나님 중심 신앙을 늘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사 왕은 그가 사는 날 동안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일평생이라는 시간이 길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아사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한 길만을 고집하며 걸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모든 악한 날에 악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감한 영적 혁신을 도전해야 합니다(12~15).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평가 받은 이유는 우상숭배를 근절하려고 노력한 것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남색 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사실입니다. ‘남색 하는 자’는 이방 우상 신전에서 일하는 남창들입니다. 아사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부터 이들은 이방신전에서 음란한 짓거리를 행하며 남유다 왕국에 역겨운 이방신을 퍼뜨렸습니다. 아사 왕이 남창을 땅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남창과 창녀들과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모두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12). 또 솔로몬 때로부터 아비얌 때까지 만들어진 우상을 아사가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세우고 섬겼던 그의 할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습니다. 태후는 왕실의 여성 중에서 가장 높은 신분의 여성입니다. 태후가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사 왕이 태후를 폐위했다는 사실은 단호하고도 위험을 무릅쓴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눈가림만 하는 개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땅에서의 자식된 도리를 지키는 일보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둘째, 완벽할 수는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으며, 부족하고 연약함을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 유다 왕국과 북 이스라엘 왕국의 전쟁으로 남유다의 왕 아사는 평생 동안 북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싸워야만 했다고 기록합니다.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옹이 된 인물로 아사 왕 3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아사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약 6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바아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을 막으려했던 이유는,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 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백성들과도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대하 15:8~15). 바아사는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아사 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통행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아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여호와와 성전에 바쳤던 은금들과 왕궁의 곳간에 있던 은금을 모두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인 벤하닷에게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종교 개혁을 목숨을 걸면서까지 단행한 아사 왕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람은 다윗과의 전쟁 후 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맺어왔던 나라입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엄청난 재물을 아람에게 보내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끊고 자신과 동맹을 맺고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사 왕이 성전의 돈을 가지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불신앙으로 보고,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엄히 꾸짖는 기사를 언급합니다(대하 16:7~10), 나이가 들면서 아사는 점점 자신의 재력과 외교술과 처신술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 **결론**

심리학 용어 중 ‘솔로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고 갈수록 신앙이 퇴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회나 조직이든지 초기에는 경건하고 견실하다가 마법에 걸린 것마냥 초심과 원칙을 잃고 그릇 행하여 비극과 몰락의 길을 걷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교회의 현실은 올바른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살피면서 일평생 하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